

1.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 투쟁경과

년	투쟁경과
2007년	9월 2일 비정규직지회 설립 9월 3일부터 지회가입을 선전함 - 원하청 관리자의 극심한 폭력자행 9월 30일까지 조합원 가입이 많은업체 폐업과 지회간부표적 징계로 인해 해고자 대량발생(35명) 10월 30일 한국지엠 서문앞에서 천막농성돌입 12월 28일 해고자 복직 및 노동조합인정을 요구로 부평구청앞 교통CCTV에서 고공농성 돌입(135일간 지속)
2008년	1월 24일 한강대교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고공농성 2월 27일 마포대교 하상시위 5월 9일 사내하청업체에서 복직확약을 하였으나 일부만 복직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10월 이후 지엠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짐-단축근무 시작
2009년	4월 비정규직 대량해고(약 1000명 이상)-복직한 조합원을 비롯하여 현장조합원 전원해고됨 지역선전전 강화
2010년	2월 군산창원 순회투쟁 4월 지역공단 순회투쟁 5월 3보1배 투쟁 7월 24일 천막농성 1000일 투쟁 12월 1일 한국지엠앞 정문광고판에서 고공농성 돌입
2011년	2월 2일 한국지엠과 해고자전원 복직합의
2013년	1월 2일 해고자 일부복직시작- 11월 1일부로 해고자 복직완료

2. 2010년 12월4일 사건개요

- 요구

2010년 12월 1일 해고자 전원복직과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요구를 가지고 한국지엠정문앞 아치모형의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돌입하였다.

- 지속적인 사측용역 및 노무관리팀과 마찰

12월 1일 고공농성이 시작하고부터 집회참가자들은 고공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판자를 올리려 하였다. 그때마다 노무관리팀은 집회장소로 대거 나와서 집회방해 및 폭력을 행사하였고 식사와 판자를 못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 저녁 촛불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기습적으로 판자를 올리는데 성공하자, 노무관리팀은 격분한 나머지 집회대오로 깊숙이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기기를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헐리우드 액션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을 폭력행위로 몰기 시작했다.

노무관리팀의 폭력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노무관리팀은 고공농성자에게

일체의 보온(털옷, 장갑, 목도리, 비닐)물품은커녕 식사조차 올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방해는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보온물품 및 식사)를 권고하고 나서야 조금 수그러 들었다.

이후에도 한국지엠 노무관리팀은 복직합의를 하기까지 64일간 수차례 집회장소에서 난동을 부렸고, 불법적으로 집회참가자와 고공농성자를 사찰하였다.

-12월 4일 상황

경찰의 방조아래 노무관리팀의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식사조차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공농성자 2인은 급기야 12월 3일 단식을 선언하였다. 집회참가자들과 조합원들은 단식을 풀라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12월 4일은 해고자 복직 및 비정규직철폐의 요구를 걸고 큰규모의 집회가 한국지엠 정문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시의원과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국회의원몇분, 그리고 각 정당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날이었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집회참가자들은 고공농성자의 단식투쟁을 만류하고 투쟁에 더욱더 동참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결국 고공농성자들은 집회대오의 설득을 받아들여 단식투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모든 집회참가자들이 보는 가운데 식사를 올리고 있던 과정에서 하이바와 고글 및 마스크를 쓴 긴 쇠파이프에 낫을 들고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고공농성자의 밥줄을 낫으로 끊으려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낫은 집회대오에게도 휘둘러 졌고, 실제로 낫에 맞아 다친 사람도 있었다. 참석한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들은 경찰에게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집회장소에서 집회대오를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하였건 경찰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사측 노무팀이 낫질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집회대오중 일부가 깃발로 낫질을 하는 노무팀의 시야를 막고 낫이 묶인 쇠파이프를 빼앗기 시작했다. 또 일부는 낫을 든 자들이 더 이상 집회대오를 오지 못하도록 조형물에 고정하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저항하였다. 이것이 그 날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이 있은후 노무팀과 용역 몇몇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단서를 끊었고, 경찰을 이를 인지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만 수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낫을 든 자들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항의했던 노동자와 집회참가자들은 유죄가 인정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되었다.

-현재상황

64일간의 고공농성은 우여곡절 끝에 유예기간을 둔 해고자전원복직이라는 합의를 하고 마무리 하였으나, 이후 2년동안은 재판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조합원은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겨우 복직이 완료된 현재 또 다시 반 인권적인 DNA 채취로 고통받고 있다.